

인테리어 직물색채의 트렌드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trend for Interior textile

박소영* / Park, So-Young
 박영순** / Park, Young-S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ior textile color changes and trend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ior color hues and tones. Heimtextil in the interior field was selected for color trend analysis from 1996 to 2000.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hue, warm colors like Y, YR, and R were most prominent in all four years. Some new colors, however, emerged with higher frequency. The frequency of GY and B increased in 96/97, GY, BG, and PB in 97/98, PB and B in 98/99, and B and PB in 99/2000. Especially between 96/2000, the frequency of PB and B has been increased, although the frequency of GY has been decreased. Over the four years, P, RP, and Neutral showed medium frequency, and G and BG showed low frequency. Gold appeared as an accent color in two years while silver appeared in one year. In summary, warm colors like Y, YR, and R were most prominent in interior color.

Second, In terms of tone, p, b, v, and sf were most prominent over the four years. Although dp and ltg appeared with high frequency in general, a wide variation was presented. The tones such as p, dp, and v appeared with high frequency in the three years of 96/97, 97/98, and 98/99. Some new tones emerged with high frequency for each years: the tones such as b, m, ltg, and dkg in 96/97 ; b and sf in 97/98 ; lt, dk and sf in 98/99. On the other hand, a new trend emerged in 99 /2000. In this year, ltg, sf, s, d and dkg appeared with high frequency unlike the other three years. In other words, soft or light tones, such as pale, soft, light, grayish, and deep, and strong tones, such as vivid and bright, appeared with high frequency.

키워드 : 트렌드 색채, 유행색채, 하입텍스틸, 인테리어 색채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테리어 디자인이란 인간이 거처하는 실내공간을 아름답고 능률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창조해 내는 계획적이고 실행과정이며 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디자인한다는 것은 건물의 구심적 매스(mass)가 되는 내부 공간을 사용자 하는 목적과 요구기능을 충족시키면서 개성도 있고 아름다우며 합리적인 마무리를 짓는 디자인 행위를 일컫는다.¹⁾

인테리어 디자인의 기본 구성요소는 질감, 문양, 선, 형태, 공간, 색채, 조명인데, 이러한 여러 요소 중에서도 색채분야는 특히 중요하다

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다. 그 것은 색채를 다루는 방법여하에 따라 실내감각을 좌우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 색의 지각과 반응에 대한 인간의 원초본능에 근거하는 심리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색의 적절한 배분과 조화는 분위기를 조절하고 건축적인 결함을 시정하며 환상을 창조하는 마력을 지닌 대신 이의 적절하지 못한 구사는 조악한 공간을 연출하고 마는 오류를 범하게된다.

미국의 색채학자인 부스타노비(Bustanoby)의 색채 조화론은 건축과 회화에 실용하여 많은 성과를 보았는데, 그가 정리한 색채조절의 효과를 보면 눈과 몸의 피로를 덜게 하여 건강에 기여하고, 모든 사람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고, 감정의 통솔을 쉽게 하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작업과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학교에서는 면학증진과 정서적 품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인테리어

* 정회원, 텍스타일 디자이너

** 부회장,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부 생활디자인전공 교수, 이학박사

1) 박홍, 실내디자인론, 기문당, 서울, 1990, p.13, p.189

에서 있어서 색채는 중요한 요소이다.

색채의 심리적 효과를 볼 때 실내공간에서 색채 요소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 될 수 있다. 따라서 강하거나 압도적인 색채보다는 장기간 있어도 심리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색채가 인테리어에서 많이 사용되어 진다. 즉 색채는 심리적 반응이나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듯 색채는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디자인은 선, 면, 색채, 질감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져서 형태를 이루지만 그 중에서도 색채는 인간의 생활에 가장 영향력 있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른하임(arnheim)은 디자인요소 중에서 색채는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이처럼 색채는 보는 순간의 감흥을 일으키는 강력한 요소인 것이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의, 식, 주의 해결은 무엇보다 중요한 욕구인데 과거에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이 해결되면 만족했지만, 현재는 좀 더 향상된 질적 생활에 대해 욕구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대 생활에 있어 이러한 향상된 욕구는 의복이나 주생활 공간에 있어서 개인적 기호와 취향에 맞는 색채환경을 요구하게 되었다. 인테리어에서 유행색은 1년 전에 외국 트렌드쇼(Trend Show)를 통해 예측 제시되어져서 국내와 해외에서 유행색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홈인테리어 산업에서는 약 1년 전에 "하임텍스틸"을 통해 테마, 칼라 그리고 소재의 트렌드가 제시된다. 공간이나 공간요소를 기획함에 있어서 트렌드 색채를 반영하는 것은 시장의 흐름을 리드하고, 판매를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유행 즉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행을 따라감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게된다. 그러므로 인테리어나 패션에 있어서 유행색을 연구하는 것은 당해 시즌을 예측하고 기획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유행색채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서 막연하게 예측해왔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4년간의 인테리어 직물 유행색채의 연도별 색상 및 색조 특성을 파악하여 그 변화 및 추이를 연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선행연구

인테리어 색채에 관한 연구는 실내 환경의 색채 의미평가에 관한 연구(신승원:1993), 국내 커튼의 문양 및 색채에 관한 연구(김은경:1998), 이미지 유형 선호도에 따른 주거 실내 디자인의 직물요소 적용에 관한 연구(정연은:1997), 쾌적한 실내환경을 이루기 위한 조건에 관한 연구(조원덕, 이진숙:1992), 실내를 지각하는데 있어 색채가 주는 의미에 관한 연구(Acking, Kuller: 1972) 등의 선행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인테리어색채의 의미, 실체, 지침, 선호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진행하려 하는 유행색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었다.

2.2. 조사대상

하임텍스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매세(messe)에서 개최되는 홈인테리어 관련 트렌드쇼(Trend Show)로써 벽지(Wallcovering), 창장식용 원단(Window Decoration Fabrics), 욕실용 원단(Bath Linen), 식탁용 원단(Table & Kitchen Linen)에 관한 새로운 트렌드 및 색상을 제시한다.

대략 10개의 홀(Hall)로 나누어진 전시장은 1홀에서 4홀은 침구용 원단, 식탁용 원단, 욕실용 원단을 전시하고, 5홀은 욕실용 악세사리를, 6홀은 벽지와 벽지용 원단을, 7홀은 트렌드 쇼(Trend Show)와 전시를, 8홀은 커튼과 커튼 악세사리를 그리고 실을, 9홀은 가구용 직물, 카페트를, 10홀은 브라인드류와 CAD/CAM장비를 소개한다.

매년 1월에 한번 개최되는 하임텍스틸은 당해와 다음해를 예측하는 트렌드를 내놓는 홈인테리어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전시회로서, 이 전시회에서 제시되는 원단의 종류 및 특성과 색채가 시장을 리드해 간다. 보통 4일간 개최되는 전시회 기간동안에 약 150개의 나라에서 72,000명 정도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약 60개국의 2,800명 정도가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박람회외 전시관에서 그해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방법을 보면, 별도의 트렌드 전시관을 설치 해놓고 먼저 칼라를 제시하고, 그해의 테마와 이미지를 제시하는 각각의 방을 만들어놓으며, 또한 새로운 텍스춰와 문양의 원단을 같이 전시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우면서 칼라와 테마의 트렌드를 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최근에는 카페트와 바닥마감재료를 전시하는 도모토텍스 하노버(Domotex Hanover)와 가구를 전시하는 국제 가구 페어(International Furniture Fair)와 비슷한 시기에 전시회를 개최하여, 국외 참관인들이 홈인테리어와 관련이 있는 3개의 전시회를 모두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대규모적인 인테리어 트렌드 쇼는 이후의 실내색채 유행을 주도하게 되므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3. 조사대상 색채의 수집

색채의 수집과정에서는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유행 예측색 자료 중에서 인테리어 전시회로는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하임텍스틸의 유행색채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인테리어에 있어서 직물은,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마감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다른 마감재들이 재료의 고유 색상만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반해, 직물은 다양한 색상과 텍스춰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행 즉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직물 분야의 트렌드 색채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직물 분야의 트렌드 색채만을 연구하였으며, 하임텍스틸 박람회에서 제시한 색채를 트렌드 색채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유행색채의 수집방법은 96/97부터 99/2000까지 네 시즌의 유행색

채를 테마에 따라 수집하였다. 여기서 수집된 색채들은 하임텍스틸 트랜드 전시관에서 제시한 당 해의 테마와 색채들을 테마에 따라 수집하여 연구하였는데, 연구 과정에서 보면 시즌에 따라서 주조색과 엑센트색을 분리하여 제시한 해도 있었고, 분리하지 않고 제시한 해도 있어서, 이번 연구에서는 주조색과 엑센트색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하였다. 또한 수집하는 과정에서 테마에 따라 중복되는 색채가 있기는 하였으나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수집된 색채들을 PCCS 색조체계를 이용하여 COS-SYSTEM으로 제작된 HUE & TONE 표에 대입시켜서 색상과 색조를 결정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HUE & TONE 표는 연세대학교 의류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COS-SYSTEM을 기초로 하여 제작한 HUE & TONE SYSTEM을 사용하였다.

2.4. 연구의 진행 방법

분석된 색채의 총 수는 132색으로 96/97년도부터 99/2000년까지의 4년간의 경향 및 흐름을 연구하였다. 먼저, 색채 정보지에 게시된 색채들을 면셀색표와 비색하여 HV/C로 구분하였다. 이 자료를 PCCS 색조 분류를 토대로 한 12개의 색조 p(Pale), lt(Light), b(Bright), v(Vivid), s(Strong), dp(Deep), dk(Dark), dkg(Dark Gray), g(Grayish), ltg(Light Grayish), sf(Soft), d(Dull)로 재분류하였고 여기에 m(Metallic), n(Neutral)을 추가하여 총 14개의 색조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색채는 96/97의 34색, 97/98의 30색, 98/99의 33색과 99/2000의 35색의 유행색채를 연구하였고,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시즌별로 중복되는 유행색채를 포함해서 분석한 색상, 색조별 빈도표를 만들어서 비교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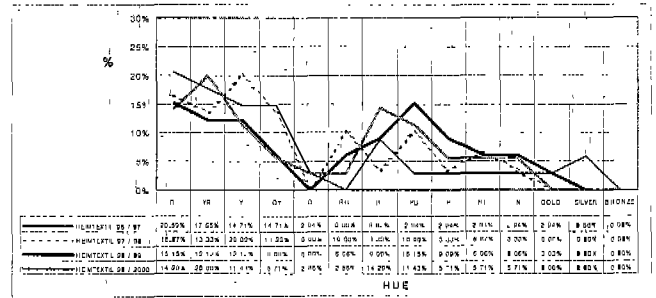
3.1. 하임텍스틸의 색상 분포 및 추이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도별 색상의 분포 및 추이를 꺾은선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1>로 정리되고, 이를 다시 원형그래프로 정리하면 <그림 2>에서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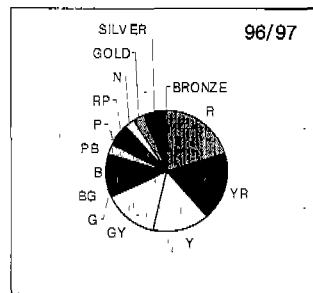
96/97은 R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다음으로는 YR, Y, GY의 순서로 나타났다. B는 중간빈도를 보이는 반면, BG색상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이 시기에는 Gold와 Silver의 Metallic이 등장하는데, 특히 Silver는 Gold보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요 색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그림 2 참조>

97/98은 Y가 가장 빈도가 높은 색으로, 그 다음으로 R, YR, G, Y가 빈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BG와 PB는 중간 정도의 빈도를 보이고 있었고, G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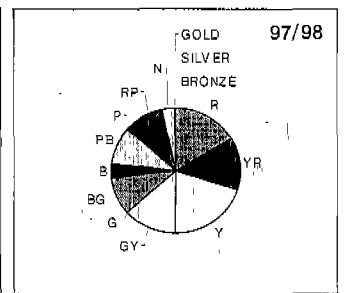
96/97과 97/98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난색계열의 R, Y, YR, GY색상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주었는데, 96/97에는 R색상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YR, Y가 높게 나타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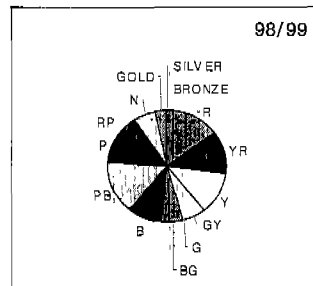
<그림 1> 96/97, 97/98, 98/99, 99/2000의 색상 빈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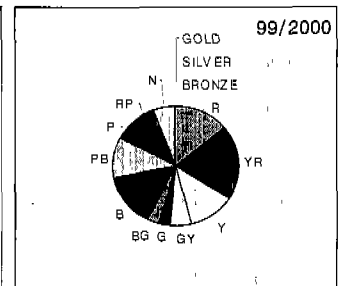
<그림 2> 96/97 색상의 빈도



<그림 3> 97/98 색상의 빈도



<그림 4> 98/99 색상의 빈도



<그림 5> 99/2000 색상의 빈도

었다. 반면 97/98에서는 Y의 빈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R, YR, GY색상의 빈도가 높았다. 96/97에서 중간빈도를 보였던 B는 97/98에 와서는 아주 저조한 빈도로 줄어들었고, 96/97에서 전혀 빈도를 보이지 않았던 BG는 97/98에 와서는 중간 빈도로 급등하였으며, 96/97에서 저조한 빈도를 보였던 PB는 97/98에 와서는 중간 빈도로 늘어났다. G, P, RP, Neutral, 은 두 시즌 모두에서 저조한 빈도를 나타내는데, 97/98과 96/97에서 차이를 보이는 색상으로 RP는 97/98에 와서 2배로 증가하였고, G는 감소하여 97/98에는 전혀 빈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96/97에서 많이 보여졌던 Gold, Silver의 Metallic색상도 97/98에서는 전혀 빈도를 보이지 않았다.

98/99에는 시즌에 거의 빈도가 나타나지 않던 PB가, 꾸준히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R과 같이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YR, Y의 순서로 나타났고, B와 P는 중간빈도를 보였다. 또한 Gold가 재등장하였다.<그림 4 참조>

97/98과 98/99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난색계열의 R, Y, YR

색상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주었는데, 97/98에 Y색상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R, YR, GY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98/99에서는 R과 PB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YR, Y색상의 빈도가 높았다. 97/98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던 GY는 반으로 줄었고, 중간빈도를 보였던 PB와 BG 중에서 PB는 98/99에 와서 더욱 증가한 반면 BG는 낮은 빈도로 줄어들었다. 96/97에서 많이 보여졌다가 97/98에서 낮은 빈도를 보였던 B와 P는 98/99에 와서는 중간 빈도로 급등하였다. G, RP, Neutral은 두 시즌 모두에서 저조한 빈도를 나타내는데, 특히 G는 97/98과 동일하게 98/99에도 전혀 빈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97/98에서 사라졌던 Metallic색상 중에서 Gold만 98/99에서 다시 나타났다.

96/97과 98/99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난색계열의 R, YR, Y 색상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주었는데, 96/97에는 R색상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YR, Y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98/99에서는 R과 PB의 빈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YR, Y 색상의 빈도가 높았다. 이 시기에는 PB가 새롭게 많은 빈도를 보인 색상이었다. 그 외의 색상인 G, BG, P, RP, Neutral 중에서 G만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약간씩의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96/97에서 Gold와 Silver로 보여졌던 Metallic색상은 98/99에서는 Gold색상만 보여졌다.

99/2000에는 YR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R, B의 순서로 나타났고, Y와 PB는 중간빈도를 보였다. 또한 Metallic색상은 소멸하였다.<그림 5 참조>

98/99와 99/2000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난색계열의 R, YR, Y색상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주었는데, 98/99에는 R, PB색상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YR, Y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99/2000에서는 YR의 빈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R, B색상의 빈도가 높았다. 이 시기에는 B가 새롭게 많은 빈도를 보인 색상이었다. 98/99에서 빈도가 높았던 PB는 99/2000에는 조금 떨어진 빈도를 보였다. 그 외의 색조인 G, BG, P, RP, Neutral 중에서 G만 증가하였고 P와 BG는 약간 감소하였으며, 나머지는 같은 저조한 빈도를 보였다. 98/99에서 보였던 Gold는 전혀 빈도를 보이지 않았다.

97/98과 99/2000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난색계열의 R, Y, YR색상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주었는데, 97/98에 Y색상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R, YR, GY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99/2000에서는 Y의 빈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R, B색상의 빈도가 높았다. 97/98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던 GY는 반으로 줄었고, 중간빈도를 보였던 PB와 BG 중에서 PB는 99/2000에 와서 조금 증가한 반면 BG는 아주 낮은 빈도로 줄어들었다. 97/98에서 낮은 빈도를 보였던 B와 P중에서 B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색상이 되었으며, P는 약간 증가하였다. G, RP, Neutral은 두 시즌 모두에서 저조한 빈도를 나타내는데, 특히 97/98 전혀 빈도를 보이지 않았던 G는 조금 증가하였고, RP는 같은

빈도를 Neutral은 약간의 증가를 보였다. Metallic색상은 두 곳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96/97과 99/2000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난색계열의 R, YR, Y색상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주었는데, 96/97에는 R색상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YR, Y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99/2000에서는 YR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R, B색상의 빈도가 높았으며 Y와 PB는 중간정도의 빈도를 보였다. 이 시기에는 B가 새롭게 많은 빈도를 보인 색상이었다. 그 외의 색상은 GY, G, BG, P, RP, Neutral 중에서 GY만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약간씩의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96/97에서 Gold와 Silver로 보여졌던 Metallic색상은 99/2000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4년간 색상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1>로 정리된다.

<표 1> 4년간 색상의 출현 빈도에 대한 변화 추이

연도	색상	R	YR	Y	GY	B	SV	G	PB	P	FP	N	GD	BG	BZ
	96/97	%	21%	18%	15%	15%	9%	6%	3%	3%	3%	3%	3%	3%	0%
97/98	색상	Y	R	YR	GY	BG	PB	RP	B	P	N	G	GD	SV	BZ
	%	20%	17%	13%	13%	10%	10%	7%	3%	3%	3%	0%	0%	0%	0%
98/99	색상	R	PB	YR	Y	B	P	GY	BG	RP	N	GD	G	SV	BZ
	%	15%	15%	12%	12%	9%	9%	6%	6%	6%	6%	3%	0%	0%	0%
99/2000	색상	YR	R	B	Y	PB	GY	P	RP	N	G	BG	GD	SV	BZ
	%	20%	14%	14%	11%	11%	6%	6%	6%	6%	3%	3%	0%	0%	0%

- * 위의 표는 빈도의 출현 순위 순으로 기입하였음
- * 지면 관계로 GOLD는 GD로, SILVER는 SV로, BRONZE는 BZ로 표기하였음
- * %는 소수점 아래에서 반올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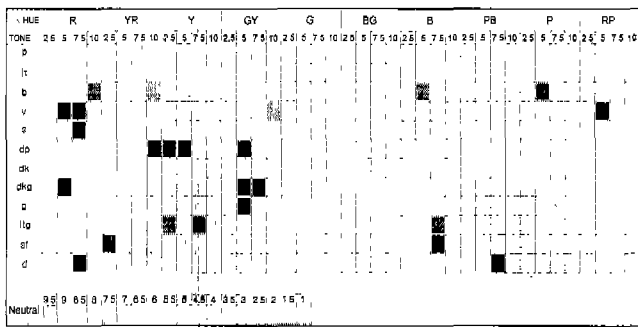
R은 96/97에서 가장 빈도가 높고 4년 내내 15%에서 21%까지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주고 있었고, YR은 99/2000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면서 4년 내내 12%에서 20%의 빈도를 보여서 두 번째로 높은 유행색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Y는 97/98에서 가장 빈도가 높고, 11%에서 20%의 빈도를 보여서 세 번째로 많은 빈도를 보여 주고 있었다. PB는 98/99에서 가장 빈도가 높고 96/97에서 가장 빈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3%에서 15%의 빈도를 보여서 네 번째로 많은 빈도를 보여 주고 있었다. B는 99/2000에서 가장 빈도가 높고, 97/98에서 가장 빈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3%에서 14%의 빈도를 보여서 다섯 번째로 많은 빈도를 보여 주고 있었다. GY는 2년은 높은 빈도를 두 번은 중간 빈도를 보여서 여섯 번째로 많은 빈도를 보여 주고 있었다. G는 97/98과 98/99에는 0%의 빈도를 보였고, 그 외 시즌에도 아주 낮은 빈도를 보였다. BG는 96/97에는 0%의 빈도를 보였고, 97/98에 특이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을 뿐 그 외 시즌에는 6% 이하의 아주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P는 98/99에만 중간 빈도를 보이고, 그 외에는 6%이하의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였다. RP는 4년 내내 3%에서 7%의 중간정도의 빈도로 일정한 빈도를 나타냈다. Neutral 색상은 3%에서 6%의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Metallic색상에서 Gold는 96/97과 98/99에서 Silver는 96/97에서만 엑센트 색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3.2. 하임텍스틸의 색상, 색조분포

조사대상 유행색에서 두 번째로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하임텍스틸의 색상, 색조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6>부터 <그림 9>와 같이 정리된다.

<그림 6>을 보면 96/97의 색조는 b가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p, v, dp의 순서로 빈도가 많이 제시되어지고 있었다. dp, b, v, dkg, p색조이면서 R, YR, Y, GY색상이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B색상에서는 b, ltg, sf색조가 약간 보여지고 있었다. 특이하게 96/97의 색조에서는 dk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neutral색조에서는 흰색만이 보여졌다.

여기에서 조사한 유행색채는 하임텍스틸에서 제시한 34개 색채 중에서 중복되는 색채를 제외한 29개의 색채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색조 분포를 살펴보면 b, v, dp색조의 분포가 4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p, dkg, ltg가 3회로 많이 보여지고 있었다. 짙은 색조와 밝거나 원색끼가 가장 많고 엷거나 회색끼가 있는 색조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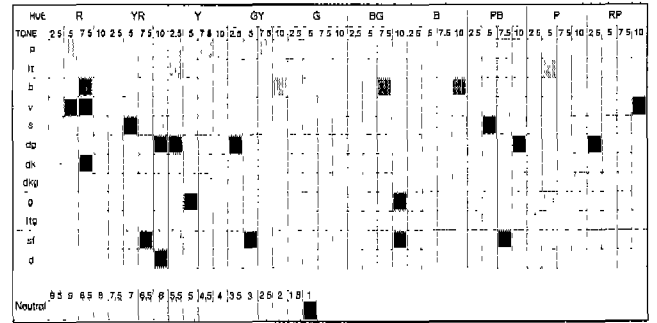


<그림 6> 96/97 유행색채의 색상 & 색조 분포표

다음으로 <그림 7>을 보면 97/98의 색조는 p와 dp가 같은 빈도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b, sf는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여기에서 v색조도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색상을 보면 Y, R, YR, GY가 가장 빈도가 높는데 여기에서는 p, dp, b, v, sf색조가 많이 보여지고 있었다. 96/97의 색상을 보면 YR, R, B가 가장 빈도가 높고 dk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반해, 97/98에서는 dkg, ltg색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neutral색조에서는 검정색만이 보여졌다.

여기에서 조사한 유행색채는 하임텍스틸에서 제시한 30개 색채 중에서 중복되는 색채가 없어서 30개의 색채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색조 분포를 살펴보면 p, dp색조의 분포가 5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b와 sf가 4회로 많이 보여지고 있다. 엷은 색조와 진한 색조와 밝고 부드러운 색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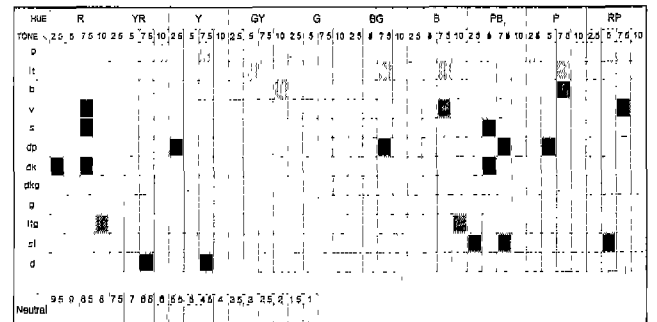
<그림 8>을 보면 98/99의 색조는 p, lt, dp가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v, dk, sf, d의 빈도가 많이 제시되어지고 있었다. 가장 빈도가 높은 색상인 PB, R색상에서는 dk와 s색조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R에서는 dk색조가



<그림 7> 97/98 유행색채의 색상 & 색조 분포표

그리고 PB에서는 sf색조의 빈도가 잦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YR, Y색상에서는 p와 d의 색조에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dkg와 g는 전혀 빈도가 나타나지 않았고, neutral색조에서는 흰색만이 보여졌다.

여기에서 조사한 유행색채는 하임텍스틸에서 제시한 33개 색채 중에서 중복되는 색채를 제외한 30개의 색채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색조 분포를 살펴보면 p, lt, dp색조의 분포가 4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v, dk, sf가 3회로 많이 보여지고 있었다. 엷은 색조와 진한 색조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둡거나 원색이거나 부드러운 색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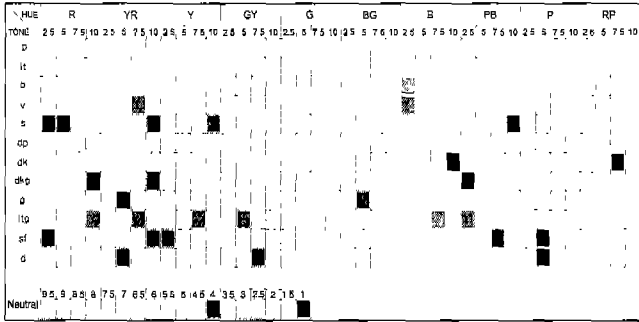


<그림 8> 98/99 유행색채의 색상 & 색조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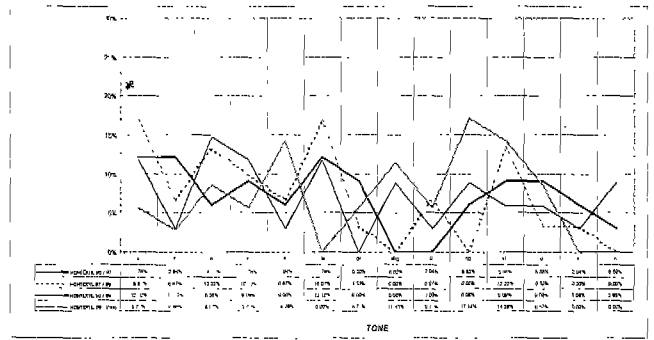
<그림 9>를 보면 99/2000의 색조는 ltg가 가장 빈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s, sf는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YR, R에서는 s, dkg, ltg, sf의 어두운 색조가 많았고, B에서는 p, b, v등의 밝은 색조가 많았다. dp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neutral색조에서는 검정색과 짙은 회색이 보여졌다.

여기에서 조사한 유행색채는 하임텍스틸에서 제시한 35개 색채 중에서 중복되는 색채를 제외한 34개의 색채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색조 분포를 살펴보면 ltg색조의 분포가 6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sf, s가 5회로 많이 보여지고, 그 다음으로 dkg, d가 3회로 많이 보여지고 있었다. 회색면 엷은 색조가 많고 그 다음으로 부드러운 색조와 어두운 색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하임텍스틸의 색조를 연도 별로 살펴보면 96/97에는 b, p, dp, v색조가, 97/98에는 dp, p, b, sf색조가, 98/99에는 p, lt, dp색조가, 99/2000에는 ltg, sf, s색조가 높은 빈도로 보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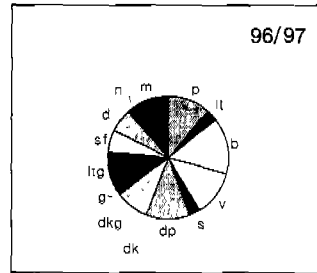


<그림 9> 99/2000 유행색채의 색상 & 색조 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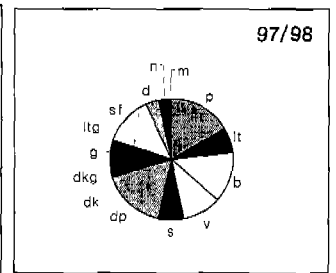


<그림 10> 96/97, 97/98, 98/99, 99/2000의 색조 빈도표

고 있었다. 즉 4년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색조는 네 시즌 중 세 번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의 빈도를 보여준 p와 dp색조였고, 그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보인 색조는 네 시즌 중 두 번이 높은 빈도를 보이고 한 번은 중간 빈도를 보인 v와 sf색조였다. b색조는 네 시즌 중 두 번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외의 색조들은 시즌에 따라 특이하게 많은 빈도를 보이는 색조가 있었는데, 96/97에는 dkg와 Itg가, 98/99에는 lt, dk, d가, 99/2000에는 s, Itg, d색조가 많이 보여졌다. 4년 내내 가장 저조한 빈도를 보인 색조는 g와 neutral색조였다. 색조는 년도에 따라서 빈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하임텍스틸이 인테리어 트렌드 쇼인 관계로, 색채는 열은 색조나 짙은 색조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고 다음으로 부드러운 색조나 원색 또는 밝은 색조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11> 96/97 색조의 빈도



<그림 12> 97/98 색조의 빈도

3.3. 하임텍스틸의 연도별 색조추이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도별 색조의 분포 및 추이를 꺾은선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10>으로 정리되고, 이를 다시 원형그래프로 정리하면 <그림 11>에서 <그림 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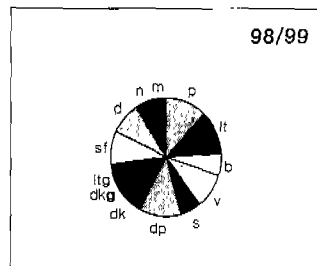
96/97은 b가 가장 빈도가 높았고, 다음으로는 p, v, dp의 순서로 나타났다. dkg, Itg, metallic은 중간빈도를 보이는 반면, dk색상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이 시기에는 gold와 silver의 metallic이 등장하였다. <그림 11 참조>

97/98은 p, dp가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b, sf가, 그 다음으로 v의 빈도가 높았다.<그림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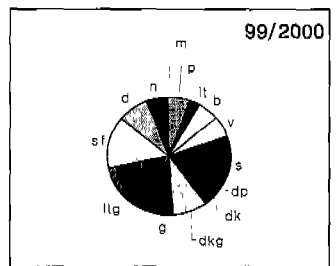
96/97과 97/98을 비교해보면 96/97의 색조는 b가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97/98의 색조는 p와 dp가 같은 빈도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96/97과 97/98의 공통점은 p, b, v, dp가 많이 나타나는 점이고, 특이한 점은 96/97에서 중간정도의 빈도를 차지했던 dkg, Itg, metallic색조가 97/98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또한 97/98에는 sf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98/99에는 p, lt, dp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v, dk, sf, d의 순서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gold가 재등장하였고 neutral도 증가하였다.<그림 13 참조>

97/98과 98/99를 비교해보면 97/98의 색조는 p와 dp가 같은 빈도



<그림 13> 98/99 색조의 빈도



<그림 14> 99/2000 색조의 빈도

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98/99의 색조는 p, lt, dp가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97/98과 98/99에 공통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색조는 p, dp, sf, v색조였었다. 서로 차이를 보이며 나타나는 색조로는 97/98에는 b색조가 있었고, 98/99에는 lt, dk, d색조가 있었다. 97/98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던 dkg색조는 98/99에도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또한 98/99에 보이지 않는 색조로는 g도 있었다. 97/98에 하나도 보이지 않던 Itg색조는 98/99에는 적은 빈도이지만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99/2000에는 Itg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sf, s의 순서로 나타났고, d는 중간빈도를 보였다. 또한 metallic은 소멸하였고 neutral색조는 98/99와 같은 빈도로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99/2000에는 dp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98/99까지 보여졌던 metallic 색조도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14 참조>

98/99와 99/2000을 비교해보면 98/99의 색조는 p, lt, dp, v, dk의 색조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99/2000의 색조는 Itg, s, dkg의 빈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98/99와 99/2000에는 sf와 d색

조가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색조였고, 98/99에는 밝은 색조가 그리고 99/2000에는 어두운 색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98/99에서 많은 빈도를 나타냈던 dp와 적은 빈도로 보여졌던 metallic색조는 99/2000에 와서는 소멸되었다.

4년간 색조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2>로 정리된다.

<표 2> 4년간 색조의 출현 빈도에 대한 변화 추이

연도	색조	b	p	v	dp	dkg	ltg	m	sf	d	lt	s	g	n	dk
96/97	색조														
	%	15%	12%	12%	12%	9%	9%	9%	6%	6%	3%	3%	3%	3%	0%
97/98	색조	p	dp	b	sf	v	lt	s	g	dk	d	n	dkg	ltg	m
	%	17%	17%	14%	13%	10%	7%	7%	7%	3%	3%	3%	0%	0%	0%
98/99	색조	p	lt	dp	v	dk	sf	d	b	s	ltg	n	m	dkg	g
	%	12%	12%	12%	9%	9%	9%	9%	6%	6%	6%	6%	3%	0%	0%
99/2000	색조	ltg	s	sf	dkg	d	p	b	v	dk	g	n	lt	dp	m
	%	17%	14%	14%	12%	12%	6%	6%	6%	6%	6%	6%	3%	0%	0%

- * 위의 표는 빈도의 출현 순위 순으로 기입하였음.
- * 지면 관계로 neutral은 n으로, metallic은 m으로 표기하였음
- * %는 소수점 아래에서 반올림하였음

4년 내내 거의 일정하게 높은 빈도를 보이는 색조는 p, b, v, sf색조로서, p는 6%에서 17%의 빈도를 보였고, sf는 6%에서 15%의 빈도를 보였고, b는 6%에서 15%의 빈도를 보였고, v는 6%에서 12%의 빈도를 보였다. 대부분의 경우에 높은 빈도를 보이지만 등락의 폭이 심한 색조는 dp, ltg색조로서, dp와 ltg는 0%에서 17%의 빈도를 보였다. 또한 일정하게 중간 빈도를 나타내는 색조는 lt와 d색조로서 lt는 3%에서 12%의 빈도를 d는 3%에서 9%의 빈도를 보였다. 중간 빈도이면서 등락의 폭이 심한 색조는 dk, dkg, s로 dk와 dkg는 0%에서 9%의 빈도를, s는 0%에서 14%의 빈도를 나타냈다.

4. 결론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96에서 2000년까지 색상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R, YR, Y의 따뜻한 색상은 네 시즌 모두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색상이었으며, 여기에 매년 마다 새롭게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색상이 있었다. 4년 동안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R, YR, Y를 제외하고 다른 색상들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96/97에는 GY와 B색상이 97/98에는 GY, BG, PB색상이 98/99에는 PB와 B색상이 99/2000에는 B와 PB의 빈도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96/97에서 99/2000으로 올수록 B와 PB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GY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4년 내내 중간 빈도를 보이는 색상은 P, RP, Neutral색상이었고, 4년 내내 낮은 빈도를 보이는 색상은 G와 BG색상이었다. Gold는 두 시즌에서 Silver는 한 시즌에서만 엑센트 색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인테리어의 색상 면에서는 R, YR, Y 등의 따뜻한 색상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표 1> 참조)

둘째,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색조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4년 내내 거의 일정하게 높은 빈도를 보이는 색조는 p, b, v, sf색조

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높은 빈도를 보이지만 등락의 폭이 심한 색조는 dp, ltg색조이다. p, dp, v색조는 96/97과 97/98 그리고 98/99의 세 시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거기에 매년 마다 새롭게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색조가 있었는데, 96/97년에는 b, m, ltg, dkg색조가, 97/98년에는 b, sf, 색조가, 98/99년에는 lt, dk, sf색조였다. 반면 99/2000년에는 전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즌에는 ltg, sf, s, d, dkg색조가 높은 빈도로 보여짐으로서 다른 세 시즌과는 달리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즉 인테리어의 색조 면에서는 pale, soft, light grayish, deep등의 부드럽거나 연한 색조이거나 vivid, bright등의 강한 엑센트 색조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표 2> 참조)

인테리어 직물의 유행색에서 색상은 연도에 따라 제시되는 색상에 차이가 있었지만, 고정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색상은 Yellow, Yellow Red, Red의 따뜻한 색상이며, 색조는 pale, soft, light grayish의 부드러운 색, deep의 차분한 색, vivid, bright의 강한 색의 3가지 색조가 기본 색조였다.

참고문헌

1. 박상호, 색채계획, 효성, 1993
2. 박상호, 건축 인테리어의 색채 이론과 실제, 효성, 1993
3. 박옥련, 색채 이론과 활용, 형설출판사, 1998
4. 박은주, 색채조형의 기초, 미진사, 1989
5. 박 흥, 실내디자인론, 기문당, 1990
6. 이상인, 트렌드를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 푸른산, 1994
7. 이병천, 인테리어칼라 코디네이션 사전, 일본 인테리어 산업협회 색채 전문 위원회편저, 조형사, 1993
8. DE GRANDIS/LUIGINA, Theory and use of color. Abrams, N.Y, 1986
9. HAROLD LINTON, Color forecasting (A survey of international color Marketing), Van Nostrand Reinhold, 1994
10. 김영인, 국내외 유행예측색의 특성 비교 : 프리미에르 비지용과 삼성트랜드 북 자료를 중심으로. 생활과학논집, 1999
11. 이진숙·조원덕, 실내 색채의 중간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3권, 1991

<접수 : 2000. 5. 3>